

감독 신뢰 후 역전 홈런 헌납... 그래서 더 아쉬운 김광현

선발 등판 승리 요건 아웃카운트 1개 남긴 상황
교체 안한 감독 선택 실패... 경쟁력 입증 중요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맞대결이 열린 25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 마이크 쉴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1-0으로 앞선 6회말 2사 1루에서 마운드를 방문했다. 마운드는 선발 투수 김광현이 지키고 있었다. 감독이 직접 걸어나오면서 김광현의 교체 유력해 보였다. 쉴트 감독은 지난 12일 밀워키 브루어스전과 1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김광현을 모두 이닝 중 바꿨다. 이번에는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포수 아디어 물리나, 김광현과의 의견을 주고 받은 쉴트 감독은 투수를

바꾸지 않고 다시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앞선 두 경기와 달리 김광현에게 신뢰를 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택은 실패로 귀결됐다. 승리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1개만 남겼던 김광현은 앤드류 본에게 역전 투런포를 헌납했다. 2B-0S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던진 체인지업이 통타 당했다. 이 한 방에 세인트루이스와 김광현의 승리가 모두 날아갔다. 앞선 경기들에서 김광현에게 아쉬울 정도로 빠른 교체 타이밍을 가져갔던 쉴트 감독이 다시 한 번 중기 회였기에 더욱 쓰라린 결과였다. 올

시즌 처음으로 100개 이상(104개) 투구로 눈도장을 찍으려 했던 김광현이지만, 후반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데 실패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쉴트 감독의 생각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어렵게 다가온다. 빅리그 2년차인 김광현은 시범 경기 중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했다. 아직은 100% 컨디션이 아니다. 투구수 역시 서서히 늘러가는 단계다. 막판 한 방은 아쉽지만 김광현은 홈런을 맞기 전까지 우타자 8명으로 무장한 화이트삭스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다음 등판 때는 6회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해졌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가운데)이 24일(현지시간)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개런티드 레이트 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인터리그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4회 마이크 맥스(오른쪽) 투수 코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김광현은 5%이닝 5피안타(1홈런) 3볼넷 4탈삼진 2실점하며 6회 교체돼 시즌 2승 도전에 실패했다.

벤투 “병역혜택 의미 알아... 정상적인 절차 거쳐 정해”

올림픽대표팀 연령대 원두재·이동경·송민규 발탁



파울루 벤투 감독이 6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을 앞두고 24일 A대표팀 28명을 발표했다.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둔 올림픽대표팀의 선수 중복 차출 협의와 관련해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이나 올림픽의 의미를 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총 28명을 발표했는데 이중 올림픽대표팀 연령대인 원두재, 이동경(이상 울산), 송민규(포항)를 포함했다. 송민규는 첫 A대표팀 발탁이다. 앞서 올림픽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벤투 감독을 향해 ‘양보’를 읊소했던 김학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섬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와일드카드까지 합류하는) 옆 나라 일본이 부럽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대해 벤투 감독은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 우리는 항상 선수를 보고, 평가하고, 원하는 선수를 선발한 다음에 협회보고 체계에 따라서 절차를 거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올림픽이 가진 의미, 아시안게임이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한다. 단순히 올림픽의 상징성과 중요도를 떠나서 선수 개개인에게도 병역혜택 등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파울루 벤투 감독과의 일문일답

된다.”
-이강인이 올림픽대표팀에 처음 이름을 올렸는데, 중복되는 선수들은 어떻게 나눴나.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다. 일단 이강인이 뛰는 포지션에 많은 자원이 있다.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라고 판단했다. 이강인이 주로 좋은 활약을 보이는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다. 이 포지션에선 남태희, 권창훈, 이동경, 이재성 등이 소화할 수 있다. 한편으로 멀티플레이어적인 요소를 보고 있다. 이 선수들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수 있지만 중앙 자원이나 측면에서도 재능이 있다.”
-이기재와 정상빈의 발탁 배경은.
“이기재는 오랫동안 관찰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라고 본다. 대표팀에서도 큰 문제없이 적응할 것이다. 세트피스에서의 능력이 큰 장점으로 판단했다. 정상빈은 특징이나 능력을 봤다. 상당히 빠르고,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투톱에서의 움직임도 유심히 봤다. 어린 선수지만 대표팀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활약할지 궁금하다. 전술적 이해도가 상당히 좋다고 본다. 어리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한일전에서 완패했다.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일전의 모습에 대해서 길고로 비추는 모습이 있고, 진짜 내실이 있는 게 있다. 한 경기의 모습을 가지고, 팀 자체가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일전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일차적으로 설명했고, 다녀와서 내부적으로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결과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는 감독 본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 2차예선이 원래

4경기에서 북한의 불참으로 3경기로 줄었다. 지금 이 명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선수들과 합심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3경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 외에는 딱히 생각하는 게 없다.”

-올림픽대표팀과 중복 차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 우리는 항상 선수를 보고, 평가하고, 원하는 선수를 선발한 다음에 협회보고 체계에 따라서 절차를 거친다. 개인적으로 올림픽이 가진 의미, 아시안게임이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한다. 단순히 올림픽의 상징성과 중요도를 떠나서 선수 개개인에게도 병역혜택 등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명단을 구성했다.”

-지난 소집에서 부상 선수들을 확인 없이 소집했는데 K리그와 어떤 소통을 했는가.
“우리는 선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항상 선수 상태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3월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중 하나가 일부 선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친 과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상황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19 변수가 있지만 문제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과거에 좋았던 과정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올림픽대표팀 연령대의 원두재, 이동경, 송민규를 발탁한 배경은.
“원두재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계속 우리가 발탁했다. 이동경도 작년 11월에는 오지 않았지만 작년 10월과 3월) 한일전에 함께 했다.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다. 송민규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꾸준히 관찰했다. 이 선수 또한 측면, 중앙을 오가면서 여러 포지션을 오갈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수 부회장, 김판곤 위원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내부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6월 소집에 대비한 여러 가지를 논의하기 위한 평범하고 정상적인 업무 미팅이었다.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미팅은 있었다. 잘 논의가 됐다고 말할 수 있었다.”

양현종, 오늘 LAA전 선발... MLB 첫 피안타 오타니와 재회

빅리그 첫 승 도전
꾸준히 입지 넓혀



‘선발 굳히기’를 노리는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LA 에인절스를 상대한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양현종을 26일 오전 10시38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LA 에인절스전 선발 투수로 예고했다. 빅리그 데뷔전 상대였던 에인절스를 한 달 만에 다시 만난다.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개막을 맞은

양현종은 지난달 27일 LA 에인절스전을 앞두고 빅리그에 풀업했다. 그 날 곧바로 구원 투수로 등판, 4%이닝 5피안타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거 양현종’의 출발을 알렸다. 이후 양현종은 꾸준히 마운드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왔다. 시즌 성적은 5경기 1패 평균자책점 3.38이다. 이 중 2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섰다.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한 양현종에겐 기회도 찾아왔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지난 21일 “양현종이 현재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다”며 앞으로 선발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현종은 5일을 쉬고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가장 최근 등판인 20일 뉴욕 양키스전에서는 선발로 나와 5%이닝 2실점을 기록하고 첫 패전을 떠안았다. 아직 승리가 없는 양현종은 LA 에

인절스전에서 첫 승 사냥에 도전한다. 이날 관련 포인트 중 하나는 양현종과 메이저리거를 뺄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와 맞대결이다. 양현종은 빅리그 데뷔전에서 7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벌이다 오타니에게 기습번트 안타를 맞았다. 양현종이 메이저리거에서 기록한 첫 피안타다. 오타니는 경기 후 벤투 시도에 대해 “상태 투수가 뛰어나서 리듬을 잡지 못했다. 그럴 땐 (정상적으로) 깨끗한 안타를 치기보다 허를 찌르는 안타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오타니는 이번 시즌 투타 겸업을 하면서도 타자로 14홈런을 날려 메이저리거 홈런 공동 2위에 올라있다. 양현종이 다시 만난 오타니를 어떻게 상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

최정, SSG 1위 질주 선봉장... 400홈런도 보인다

4월 5개·이달 현재 6개 홈런 기록... 16연속 두자릿수 홈런



SSG 랜더스의 간판타자 최정(34)이 타선의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KBO리그 통산 400홈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최정은 2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다시 홈런포를 장전한다. 최정 홈런포는 올해도 쉽없이 폭발하고 있다. 지난 4월 5개의 아치를 그려낸 최정은 5월 들어 6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다. 특히, 5월9일 기움 히어로즈전, 11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3개의 홈런을 몰아치기도 했다. 2005년 데뷔한 최정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터뜨렸다. 이는 KBO리그 최초의 기록이다. 올해 11개의 홈런을 터뜨린 최정은 통산 379홈런을 기록 중이다. 앞으로 21홈런만 추가하면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400홈런 고지에 오르게 된다. KBO리그에서 400홈런을 달성한 선수는 ‘라이언 킹’ 이승엽(전 삼성 라이온즈·통산 467개)이 유일하다. 최정은 5월 들어 6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다. 특히, 5월9일 기움 히어로즈전, 11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3개의 홈런을 몰아치기도 했다. 2005년 데뷔한 최정은 2006년부터

문 3위를 달리고 있다. 2016, 2017년 홈런왕에 등극한 최정은 통산 세 번째 홈런 1위 타이틀에 도전한다. 최정은 4월 타율 역시 0.257에 머물렀지만, 5월 들어 0.379의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최정은 시즌 0.311의 타율을 기록 중이다. SSG에서 3할 타자는 최정이 유일하다. 올해 30타점을 기록한 최정은 팀내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다. 5월 들어 두 차례나 4타점 경기를 펼치는 등 16경기에서 18타점을 흡수했다. 최정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SSG(23승 17패)는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최근 SSG가 5연승을 거두는 동안, 최정은 두 차례나 결승타를 날렸다. 최정은 지난 18일 KIA 타이거즈전에서 1회초 선제 2타점 2루타를 날려 승리에 기여했고, 지난 22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1회초 결승 3점포를 날려 승리를 이끌었다. 두 차례 모두 경기 초반 기선 제압으로 승리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최정은 이번 시즌 네 차례의 결승타를 쳐내 베테랑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SSG는 올해 ‘최신맥주(최정·추신수·로맥·최주환)’의 장타력에 큰 기대를 걸었다. 최정이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추신수와 로맥 등 타자들의 폭발을 유도하고 있다.

뉴스